

2010 수능

예상점수 활용 '맞춤지원 전략' 세워야

■ 대입, 진짜는 이제부터... 수능 이후 대비

같은 정시라도 전형 요소 면밀 검토

내신중요... 기말고사 소홀해선 안돼



2010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은 끝났지만,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수능까지가 대입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면 진짜 입시는 수능 이후부터기 때문이다.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진학의 달인'으로 통하는 김재근(사진) 광주시교육청 진학정보팀장의 도움으로 수능 이후 대입 전략법을 살펴봤다.

◇기제점 결과로 지원 전략 세우기
=수능 이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체

점 결과를 활용해 지원하려는 모집단위를 결정하는 일이다. 우선 자신의 수능 예상 원점수를 최대한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

수능과 학생부, 대학별고사 등 전형요소를 바탕으로 정시모집에서 지원할 대학을 3~4개 정도 정리해둔다. 정시모집에서는 '가·나·다·군' 등 세 차례의 복수지원 기회가 있다.

지원 대학을 결정했다면 모집군별로 적절히 조합해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소신·적정·안정 지원 식으로 지원 전략을 짠다. 지나치게 하향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능 자신 있다면 정시 노력라=

수능 이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체

■ 11월에 실시하는 대학별고사 일정

일	대학별고사
14일	- 건국대 자기총천 면접 - 서울여대 2차 면접 - 성균관대(자연)
15일	- 중앙대 논술(인문)
21일	- 성균관대(인문)
22일	- 중앙대 논술(자연)
23일	- 고려대 일반 논술 - 서울여대 논술
26일	- 한양대 논술
27일	- 한국외국어대 논술
28일	- 서울대 특기전형 구술면접
29일	- 숙명여대 논술 - 서울대 특기전형 구술면접 - 건국대 리더십 면접 - 아주대 논술 - 연세대 진리자유 면접 - 아주대 논술(인문) - 인하대 논술

각각이므로 지망하는 대학과 모집군의 전형방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상위권 대학의 경우 모집인원의 20~70%를 수능 성적만으로 우선 선발한다. 또한 수능성적만 100% 반영하는 전형은 수능 우선선발 전형에 비해 모집인원이 적고 특목고생, 재수생들의 지원이 많아 경쟁률과 합격점수가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수능 이후 수시 원서 접수 대학 공략=수시 2~2 1차 합격자라면 자체점수에 근거해 논술 응시 대학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수능 이후 수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을 파악해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수시모집 대학은 교과 성적으로 5~10배수를 선발해 논술, 면접으로 최종 선발하는 만큼 논술에 자신있는 학생들이 도전해 볼만하다. 다만 정시에서 충분히 합격 가능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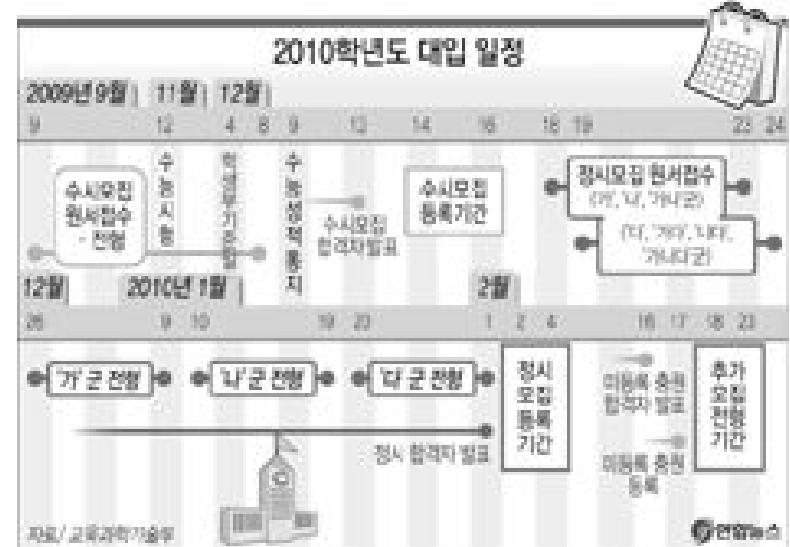
◇수능 최저학력기준 확인해야=

다양한 전형요소가 활용되는 수시모집이라도 서울지역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대부분 일정 등급 이상의 수능 성적을 최저학력기준으로 설정해 학생을 선발한다. 2008학년도 고려대 수시 일반전형에서는 전체 지원자의 34.5%가 수능 2개 영역에서 2등급 이상을 받지 못해 탈락한 경우도 있었던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내신 성적도 끝까지 관리=수능 이후 각 학교에서 실시되는 기말고사를 소홀히 해선 안된다. 2010학년도 학생부 작성 기준일은 12월 4일이기 때문에 그간 기말고사 성적 뿐 아니라 봄·여름 활동 등의 실적도 이 때까지 모두 기록된다.

학생부는 정시전형에서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는 점과 특히 상당수 대학에서 고교 3학년 때 성적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만약 재수를 하게 될 경우 내년 수시모집에서 전 학년 성적이 반영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수능 이후 지원 가능한 수시모집 대학

월	미감일	내신 중심 전형	대학
13일	군산대		
16일	강남대, 경기대, 경원대, 을지대(성남)	국민대, 한국외국어대	
17일	기천여대, 단국대, 숙명여대, 숭실대, 인천대, 인하대, 초당대(3차), 한국항공대, 한림대	서강대, 숙명여대, 이주대, 인하대	
18일	건국대(총주), 배재대	명지대(3차)	
19일	가톨릭대, 광운대, 동국대, 서울시립대(3차), 이화여대, 충선교대, 호원대, 흥의대		
11월	20일	건국대, 경남대, 국립대, 대전대, 동양대, 목원대, 서원대, 삼지대(3차), 성신여대, 세명대, 영동대, 우석대, 유풍대, 전주대, 중부대, 청운대, 평택대, 한국국제대, 한림대, 한신대, 한신장신대, 협성대, 호서대	
	23일	경성대, 부산기타릭대, 선문대, 순천향대, 영산대, 여수대	
	25일	관동대(3차), 대구외국어대, 위덕대	
	26일	기아대, 청주대	
	27일	경동대(3차), 성민대, 애원예대(3차), 칼빈대	
	30일	건동대	
12월	1일	경북국어대	
	6일	한려대(3차)	
	7일	서남대(3차)	
	8일	신경대(3차)	

■ 정시 수능 우선선발 대학

대학명	모집단위	모집군	전형 방법	최저학력기준	수능 반영 영역
기틀리대	인문·자연 (선택제외)	가	50% 수능 100 50% 학생부 30+70	인수외팀	
경희대(서울)	인문, 자연	가	50% 수능 100 50% 학생부 30+수능70	한의예·반영영 역 2개 이상 1 등급	
	인문, 자연(사 범, 의과대학 서외)	가	70% 수능 100 30% 학생부 50+수능50	연수외팀	
고려대(인암)	의과대학	가	70% 수능 100 30% 학생부 40+ 수능 50+ 면접 10	연수외팀	
	사범대학	가	70% 수능 100 30% 학생부 40+ 수능 50+ 적성·인성 10	연수외팀	
서강대	인문, 자연	나	60% 수능 100 40% 학생부 25+수능 75	연수외팀	
서울시립대	유전공학부 (서외)	가/나	50% 수능 100 50% 학생부 30+수능 70	연수외팀	
성균대	인문, 자연	가/나	70% 수능 100 30% 학생부 30+수능 70	반도체시스템 공학·슬리가, 파워·금속	연수외팀
숙명여대	인문·자연(교 류, 글로벌서 비스 제외)	가	50% 수능 100 50% 학생부 30+수능 70	연수외팀	
연세대(서울)	인문, 자연	가	70% 수능 100 30% 학생부 50+수능 50	연수외팀	
이화여대	인문, 자연	가	50% 수능 100 50% 학생부 40+수능 60	-인문, 수학교 육, 과학교육, 인수외팀 -자연: 수탐, 인외(1)	
인하대	인문, 자연	나	30% 수능 100 70% 학생부 30+수능 70	연수외팀	
중앙대(서울)	인문, 자연	나	50% 수능 100+수능 60	연수외팀	
한국외대 (서울)	인문	나	50% 수능 100 50% 학생부 20+수능 80	연수외팀	
한양대(서울)	인문, 자연	가	70% 수능 100 30% 학생부 30+수능 70	연수외팀	

* 정시 일반전형 기준, 최종요강이 나오지 않은 대학은 올해 초 나온 요강(안)임

당장 논술고사도 준비 하라

14일부터 성균관·중앙대 등 실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당장 이번 주말(14~15일)부터 성균관대, 중앙대를 시작으로 수시 2차 논술고사가 줄줄이 이어진다.

시험에 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데 논술을 보는 상당수 주요 대학이 60% 이상의 높은 반영 비율을 정해놓고 있어 집중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논술고사 실시 일정=대다수 대학의 수시 논술 일정은 11월에 물려 있다.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서울여대 등이 모두 이달에 본다. 정시 논술은 서울대, 서울교대, 춘천교대와 일부 신학대가 내년 1월 치를 예정이다.

수능이 당락을 좌우하는 정시와 달리 서울대를 제외한 주요 대학 수시모집에서 논술 비중은 매우 크다. 수시모집에서는 대부분 대학이 '학생부+면접'을 기본으로 여기에 논술 점수와 수능 최저학력기준 등을 반영한다.

◇효과적인 논술 대비법=기출 문제의 중요성은 논술에서도 유효하다. 난은 시간이 족박한 만큼 본인이 지원한 대학의 기출문제와 올해 모의 논술문제를 직접 풀어보기로 철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같은 주제의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겠지만, 문제 구성방식은 대동소이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난은 기간에 최소한 한 차례 이상은 모의 논술시험을 볼 것을 조언한다.

유웨이(중央교육)은 "무엇보다 출제자가 논제를 통해 무엇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훈련을 반복해 실수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합논술의 논제는 과정 중심의 세트형으로 출제된다. 특히 요약, 비교, 대조, 비판 등의 논제는 제시문과 문제에 대한 이해력과 독해력을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반드시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어 모의 논술문제를 직접 풀어보기로 철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교과서 학습활동 문제를 통해 논술 기본기를 다지고 교과서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현안과 이슈도 점검하는 것이 좋다.

한국교원대학교 김재근(사진) 광주시교육청 진학정보팀장은 "모의 논술시험을 볼 때는 출제자가 주제를 제시하는 경우에 따라 학생부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는 학생부에 더 유리한 점이 있다"며 "교과서 학습활동 문제를 통해 논술 기본기를 다지고 교과서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현안과 이슈도 점검하는 것이 좋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법원 앞에서 70m 범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번호사 무료법률상담 /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영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질을 확보하고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경매에 관한 모든 상금
062)236-3400

경매에 관한 모든 상금
062)236-3400</